

중소형주

쏟림 되돌릴 수 있는 촉매제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나승두 / nsdoo@sk.com / 3773-8891

Signal: 역대급 변동성 이후 나온 지수 급반등, 8월 기대감 높이는 신호

Key: 과도한 쏠림에 청구된 비용, 다음은 쏠림(소외)의 되돌림에서 나올 것

Step: 쏠림 동력 차단, 투자 주체 귀환, 하반기 정책 기대감 주목

역사에 남을 한 주

7월 마지막주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3.8% 하락하는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 이틀 연속 동시 서킷브레이커를 볼 수 있었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수 하루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양 지수 모두 7월 한 달간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어느 금융 위기 당시 못지 않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바닥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거래일 큰 폭의 지수 반등은 8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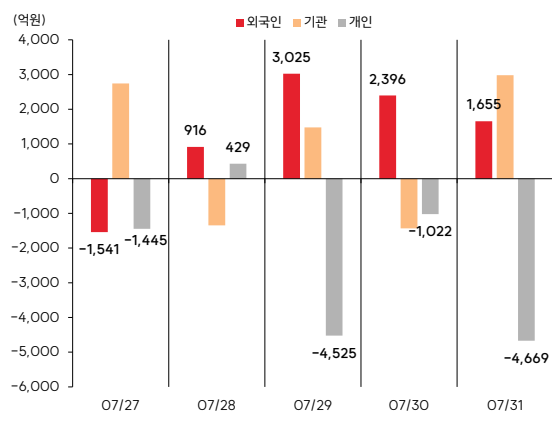
과도한 쏠림에 청구된 비용

7월 한 달간 경험한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은 말 그대로 과도한 쏠림에 대해 청구된 비용과 같은 시간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BIG 2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에 더해 단일종목레버리지 ETF의 영향까지 커진 상황에서 BIG 2의 조정은 곧 시장 전체의 조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위험하다는 신호보다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는 아니었을까? 과격한 조정이 있었지만 환율 안정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지수 반등에 1차적으로 성공한 상황에서 증시의 다음 움직임은 쏠림(소외)의 되돌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쏟림을 되돌릴 세 가지 촉매제

첫째, 쏠림의 동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었다.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출시 후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넘어서는 구조적(기계적)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접근 기준을 재조정하면서 신규 유입금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BIG 2로 집중되던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더 좁아진 것이다. **둘째, 수급 주체의 귀환이다.** 7월 마지막주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순매수를 기록했다. 개인이 코스닥 순매도로 전환했던 5월 이후 외국인의 코스닥 누적 순매수는 4조원을 넘어서었다. 쏠림으로 인한 소외된 분야(섹터)의 가격 매력은 분명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하반기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우선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이고,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옥석가리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신뢰도 제고에는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7월 마지막주 주요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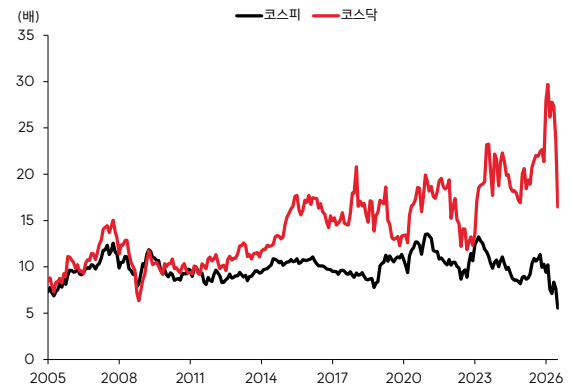
7/31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Top 10

(단위: 억원)

종목명	순매수	시가총액	업종	YTD(%)
레인보우로보틱스	33,866	84,001	기계	-8.0
알테오젠	19,741	165,314	건강관리	-31.4
에코프로	16,203	107,399	화학	-12.9
에스피지	13,971	20,980	IT 가전	16.4
파마리서치	13,574	35,169	건강관리	-16.0
테크윙	12,803	15,359	반도체	-9.5
로보티즈	12,786	26,947	기계	-29.6
현대무비스	11,638	23,723	기계	13.4
고영	10,679	18,586	IT 하드웨어	19.0
우리기술	8,246	15,496	상사, 자본재	1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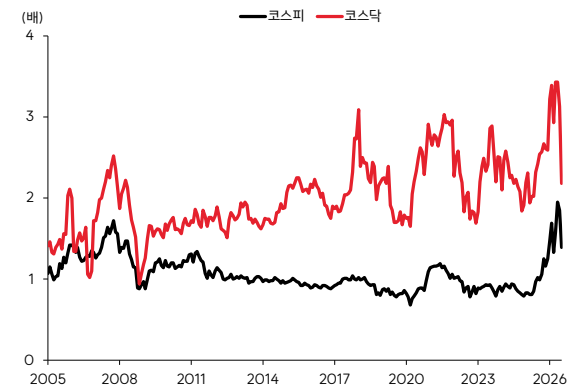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 & 코스닥 12개월 선행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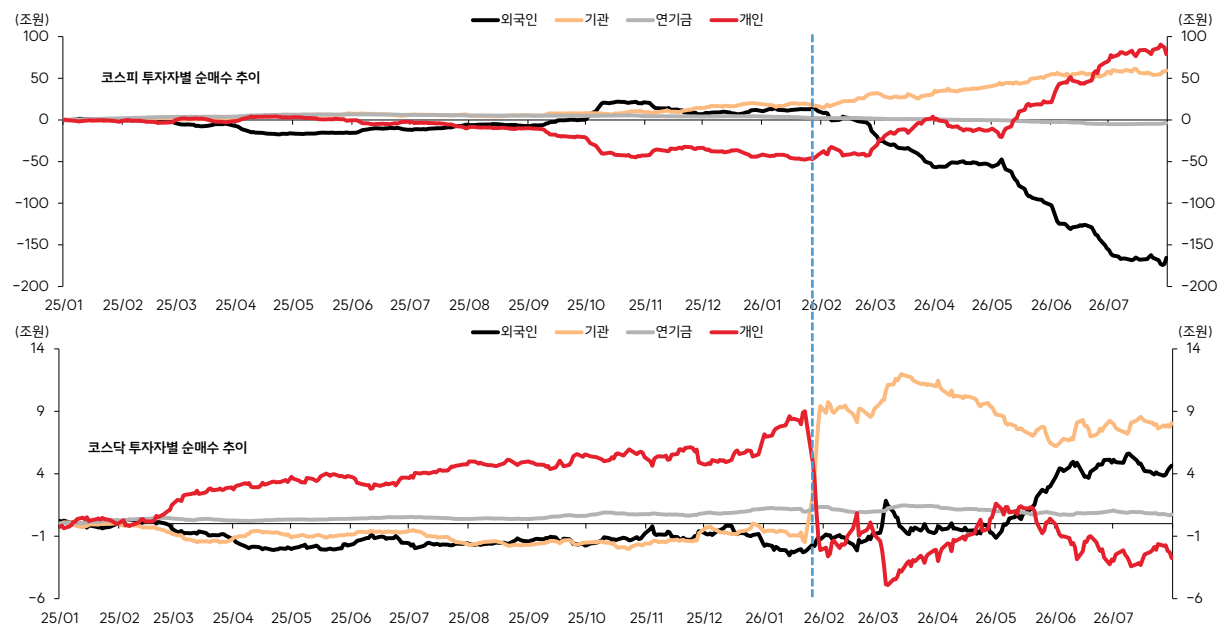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 & 코스닥 12개월 선행 PBR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2025년 이후 주요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나승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8월 03일 기준)

매수

93.96%

중립

6.04%

매도

0.00%